



광주일보 선정 2007년 스포츠 10대 뉴스



최경주 PGA 2개 대회 우승...상금 5위

‘완도 탱크’ 최경주(37·나이키골프)는 최고의 한 해를 보냈다. 지난 2002년 PGA 첫 우승을 일궈냈고 2005년과 지난해 각각 한차레씩 우승컵을 거머쥐어 PGA투어에서 자리를 잡은 후 올 해는 메모리얼 토너먼트, AT&T 내셔널 등 특급대회에서 우즈, 엘스, 싱 등 세계 ‘빅3’를 제치고 정상에 올랐다. 올 시즌 최경주는 458만달러를 벌어들여 상금 랭킹 5위에 올랐다. 체육훈장 청룡장을 받은 최경주는 ‘최경주 자선재단’도 설립, 그린 밖에서도 스타플레이어가 됐다.



전남 드래곤즈 FA컵 2연패

전남 드래곤즈가 FA컵 결승전에서 포항 스틸러스를 2연승으로 제압하고 우승컵을 안았다. 전남은 12회째를 맞은 FA컵에서 통산 세 번째 우승이자 사상 처음 2연패를 달성하며 전국축구사를 새로 썼다. 더욱이 내세울 만한 스타 선수가 없었던 전남의 2회 연속 우승은 더욱 값진 평가를 받았다. 전남은 이번 FA컵 우승으로 상금 2억원과 함께 내년 아시아축구연맹(AFC) 챔피언스리그 출전 티켓도 거머쥐었다. 전남을 우승으로 이끈 허정무 감독은 한국 축구 국가대표 감독에 선임 되었다.



KIA, ML 최희섭·서재응 영입

올 시즌 KIA는 최악의 성적 속에서도 최희섭·서재응이라는 메이저리거 영입으로 1위 팀 못지않은 뜨거운 관심을 모았다. 몇 년 동안 거포 부재로 화끈한 공격야구를 펼치지 못했던 KIA는 최희섭의 등장으로 집중력 있는 득점포를 가동하게 됐다. 최희섭이 올 한해 날린 홈런 수는 7개에 불과하지만 시즌 후반에 접어들면서 목격해온 방향이는 2008년 활약을 예고했다. 메이저리그 28승 투수 서재응의 영입으로 선발진의 잇따른 이탈로 어려움을 겪었던 마운드에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김연아 그랑프리 파이널 2연패

지난해 12월 2006-2007 국제빙상경기연맹(ISU) 피겨스케이팅 시니어 그랑프리 파이널에서 한국인으로 사상 첫 금메달을 따내며 한국 빙상 역사를 새로 쓴 ‘피겨 요정’ 김연아(17·군포 수리고)의 신드롬이 계속된 한 해였다. 김연아는 올 3월 세계선수권 동메달에 이어 지난 11월 시니어 그랑프리 시리즈 3차대회에서 역전우승을 차지했다. 연이어 그랑프리 5차대회에서 쇼트프로그램과 프리스케이팅에서 월등한 실력으로 그랑프리 파이널에 출전, 2연패를 달성했다.



장미란 세계역도선수권 3연패

여성 헤라클레스 장미란(24·고양시청)이 세계역도 선수권대회에서 3연패 위업을 달성했다. 한국 역도 사상 세계선수권대회를 세 차례나 석권한 선수는 장미란이 유일하다. 장미란은 지난 9월 태국에서 열린 2007년 세계선수권대회에서 라이벌 부왕상(23·중국)을 누르고 용상과 합체에서 2관왕을 차지했다. 특히 장미란이 들어올린 합체 319kg은 자신이 세운 종전 합체 기록(318kg)을 1kg 경신한 세계 타이 기록. 장미란은 세계선수권 3연패를 달성하며 2008년 베이징올림픽 금메달 전망을 밝게 했다.

‘지존’ 신지애 시즌 9승 ‘신기원’

전남출신 19세 소녀 신지애(하이마트)가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의 신기원을 열었다. 지난해 프로 무대에 데뷔해 신인왕과 다승왕 등 5관왕을 차지했던 신지애는 올 해는 올 해를 경신하며 한국여자프로무대를 평정했다. 올 시즌 18개 대회에 출전, 9개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하며 다승왕과 함께 최우수선수에게 주는 KLPGA 대상까지 거머쥐었다. 여기에 시즌 최저타수상(70.72타)과 상금왕(6억 7천454만원)까지 차지했으며 세계여자프로골프 랭킹 8위까지 뛰어올랐다.



광주, 체전 3위...시·도 분리 후 최고

지난 1993년 이후 14년만에 대회를 개최한 광주시는 제88회 전국체육대회에서 카누를 제외한 40개 종목에 출전, 5만 2천312점을 얻어 광주·전남 분리 이후 최고 성적인 3위를 차지했다. 특히 광주는 3만 여명의 전국 시·도 및 해외동포 선수단이 참가한 역대 최대규모의 대회를 치르면서 성적 뿐만 아니라 대회 운영에서도 만족대회를 평가 받았다. 또한 스포츠에 문화와 예술을 가미시켜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등 시민제전으로의 변화를 시도했다는 점에서 신선한 반응을 얻었다.



KIA 2년만에 또 최하위 불명예

한국 시리즈 9차례 우승에 빛나는 KIA가 2년 만에 다시 꼴찌로 떨어져 야구 명가의 자존심을 구겼다. 올 시즌 성적은 51승 1무 74패, 1위 SK와는 무려 24게임차. KIA는 당초 우승 후보로 거론됐지만, 5월 초 6연패를 시작으로 깊은 부진에 빠졌다. 이대진·김진우의 이탈로 선발진이 무너졌고, 팀을 수습해야 할 이종범·김종국 등 스타도 최악의 성적을 내면서 일찌감치 시즌을 마감했다. 선수진 운용도 도마 위에 올라 감독과 단장이 교체되면서 조범현 전 SK감독이 새 사령탑을 맡았다.



박태환 경영월드컵 시리즈 연속 3관왕

‘마린보이’ 박태환(18·경기고)은 지난 3월 호주 멜버른에서 열린 제12회 국제수영연맹 세계수영선수권대회 남자 자유형 400m에서 3분44초30에 끝인, 장거리 최강자로 군림해온 그랜트 해켓(27·호주)을 제치고 금메달을 따내 한국수영 역사를 새로 썼다. 이어 지난 8월 일본 지바에서 열린 일본국제수영대회(프레올림픽) 자유형 400m에서 다시 한번 해켓을 누르고 우승했으며, 지난달 호주와 스페인, 독일을 돌며 출전한 경영월드컵에서는 3개 시리즈 연속 3관왕의 위업을 달성했다.



2014년 평창동계올림픽 유치 실패

두번의 성공과 한번의 실패. 하지만 한 번의 실패가 뼈아팠다. 세계육상선수권대회와 하계아시안게임, 그리고 2014년 동계올림픽 유치에 나선 한국은 세계육상선수권대회와 2014년 하계아시안게임을 유치했으나 동계올림픽 유치는 실패했다. 국내에서 세번째 개최하는 아시안게임이지만 인천은 동북아시아 허브도시로 성장할 수 있는 동력을 마련했다. 하지만 동계올림픽 유치에 나선 평창은 4년전 역전패에 이어 이번에도 2차에서 재역전패를 당해 아쉬움을 감쌀 수밖에 없었다.



작은만남 큰 기쁨
광주일보 친절한 서비스와 고객의 입장에서 모시겠습니다.

개업·성업 안내 구독신청 및 배달사건은 본사 판매국(062)220-0551	청강한뜸연구원 서구 화정동 귀소년원정문앞 4대째 이어온 전통 조식한방을 잇기 위한 개업소(062)676-0627 ☎(010)8338-2572	운남생활용품 광산구 운남동 농협금구지점앞 생활·주방용품,이천도자기공방가게서문종정 1인용이상·월배구/원배구·스포츠용품점 ☎(062)431-0659	가마솔한정식부페 동구 대인동 25-4번지 한정식부페 1인3,500원 오후메뉴 뷔페도리빙 홀이랑,패지셔너,대형부페,방어짜게 전문 ☎(062)224-8868	스토리 봉선동 하이엔스거리 생생APT근처 레스토랑, 수입맥주 ☎(062)672-0678	쌈스(Ssong's)부디찌개학동점 동구 학동 280번지 부디찌개 전문점 ☎(062)261-5260	옛날손짜장 대인동 롯데마트후문골목 손짜장,간짜장,삼선짜장,탕수육,시원탕수육 전화문서신 신속배달 ☎(062)232-0036	
유로(미쓰비시) 남구 월산동 82-7번지 수리전문 대표 양현석 ☎(062)366-3339	여수농동회직판장 광산구 우산동 1580-17번지 자연산 산자적송판매 뜰,우렁,농어,광어,각종화전문 ☎(062)952-7915	수미식당 북구 북동 130번지 갈치초밥,꽃게탕,조기대문탕,제육볶음 추어탕,김치찌개,돈장찌개전문 ☎(062)511-8293	진조(주월점) 주월동 리안가든@건너 빅스포원 퓨전호프 소주 주점 ☎(062)676-6001	귀향정 북구 종합동 백림호텔옆 고향맛 해물생선,생선조림,생선스키요리 대표 문순순 ☎(062)522-2743	푸른건강원 중흥동 광주교대편 E-미트맞은편 양미음,배출,포도즙,복합비타민,생약,가죽,최신 의약품,서비스로 모시겠습니다 ☎(062)512-2752		
양자강 장성군 장성을 영천리 면류,밥류,안주류,겨울복이 떡국,민두국 최고의 맛 최선의 서비스 신속배달 ☎(061)394-9774	송림산장 장성군 황룡면 신호리 293번지 복수,천동오리,닭도리탕,오리백숙전문점 단채,손님 환영 ☎(061)393-4248	청학동 서구 농성동 서구청근처 매운김밥,떡볶음,곱창전문점 대표 이순금 ☎(062)363-8598	한우하우스 광산구 우산동 1606-18번지 개장백반,생고,갈비살,골뱅이,생삼겹살 전문 대표 변한강 ☎(062)942-1574	삼겹한판 북구 두암동 위미트점문앞 생삼겹,백반,패지셔너,생삼겹살,생삼겹살,생삼겹살,남자 아르바이트 수시모집 ☎(062)264-1190	향토장어술블구이 송하동 127-108번지 백반, 산자적송 손질포장판매 ☎(062)676-7222	한솔회관 문흥동 광명@후문 설타코아키거리 생선조림전문점 단채모임현영 연말 예약시 10%할인 ☎(062)264-2059	Violet 포크아트 서구 풍암동 풍암고정문맞은편 공예(리폼전문),수강생모집(취미반) 인테리어 소품 판매 ☎(062)652-7847
이태리치킨 장성군 장성을 영천리 후라이드치킨+양념치킨,후라이드 한미리 후라이드치킨+족발(2인분) 생맥주 배달가능 ☎(061)393-7482	LS농기계장성총판 장성군 황룡면 장산리 249-20 콤바인,트랙터,경운기,각종농기구 판매 및 AS전문점 ☎(061)392-4852	남송김민정역리원 북구 두암동 마린보이@구사거리 생치마점정 정명,리폼,생선,해물,화살치기 수경생수사업 동명동에서 두암동으로 이전개업 ☎(062)232-7017	누린송아지 북구 유동 16-11번지 생고,배반,한우갈비,곰탕,생삼겹살,생삼겹살 대표 김승길 ☎(062)529-2121	형제자동차공업사 송하동 만남의광장주유소 뒤편 부분도색, 특수염처리도색 24시간무로 견인차량대기 ☎(062)674-2666	하삼생고기&감자탕 학동 목척도식장 정문옆 꽃집옆500원생삼,700원감자탕(대28,000) 대표 김창규 ☎(062)224-0398	문흥골세꼬시·합어 문흥동 문흥파출소위 산자적송, 자연산전문 ☎(062)264-6611	관광호텔커피숍 수기동 구현대극장옆1층 커피, 맥주, 양주전문 이득한 분위기 ☎(062)225-7991
본때 장성군 장성을 영천리 1511-1 김치,떡볶이,우거지,생선,떡볶이,떡볶이 대표 최은경 ☎(061)393-8332	득도횃집 대인동 대인시장 회센터앞구 광어,농어,돌,우렁,각종합어,자연산전문 각종모임 최선의 서비스로 모시겠습니다 ☎(062)225-0027	새운생크 광산구 송정동 광주은행옆 리모델링 생크대 전문 대표 김홍삼 ☎(062)945-6957	한성한우명가 광산구 우산동 1581-2번지 한우전문점 대표 이정남 ☎(062)955-7051	일등금수학학원 진월동 대주1차@상가3층 수학기초학원 ☎(062)671-2345	여수회 광산구 운남동7번지 목련초교앞 자연산 전문 이주점,해물탕 전문 대표 김영수 ☎(062)952-2018	에멘다방 대인동 소방서 시거리 새로운 커피숍, 수시배달 대표 김계술 ☎(062)224-5233	월빙시대 학동 정도프리자얌 생삼겹살,오리,생선,떡볶이,떡볶이 대표 양희수 ☎(062)222-4858